



서정주의 친일시 논쟁을 통해 보는 삶과 문학의 태도

## 삶이 아름답지 않아도 시는 아름다울 수 있는가?



〈문화예술〉이 개국한 가상 방송국 MYB의 〈101분 토론〉은 과거에 벌어졌던 예술계의 논쟁을 꼬집어내서 패널의 입을 빌려 재현하는

가상 토론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TV 토론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보다 딱 1%만 더 나은 토론을 만들겠다는 야심으로 101분간 진행되며, 최고의 사회자로 평가받는 손석희 씨 대신 손석화 씨를 진행자로 모셨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미당 서정주의 시와 삶의 태도. 아름다운 조선어의 결정이라는 서정주의 시는 그의 친일과 친독재 행적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교과서에 수록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그의 타계 직후인 2001년 ‘미당문학상’이 제정되면서 매서운 비판이 일기 시작해 문단의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는 훌륭한 시인인가, 친일 매국노인가. 친일 매국노인 사람은 동시에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없는가. 아니, 그의 시가 정말 아름답긴 한 것인가. 서정주 시인을 둘러싼 문단의 논쟁들을 압축하여 지면으로 옮겨보았다. 패널의 발언은 모두 신문, 잡지, 단행본 등에 공표된 내용을 발췌, 인용한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폄하의 의도는 전혀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글 홍상희 편집부



미당 서정주(未堂 徐廷柱, 1915~2000)

#### 사회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YB <101분 토론>의 손석화입니다. 지난해 겨울 <101분 토론>의 임시편성 방송 ‘돌아오지 않는 그림-신학철의 <모내기> 논쟁’ 편이 나간 이후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외의 뜨거운 반응에 저희 MYB에서는 이 <101분 토론>을 정규화하여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규 프로그램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101분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구절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미당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의 첫 소절이죠. 중고등학교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고, 운동주 시인의 <서시>와 함께 한국인들에게 가장 널리 암송된다는 이 시는 아름다운 시어와 서정적인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지는 작가인 서정주 시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평가가 엇갈리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겨레의 정서를 노래한 언어의 마술사이자 민족시인인 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친일파이며 신군부에 부역했던 기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결국 ‘미당 서정주의 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가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토론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미당의 시는 시 자체로만 보아야 한다’는 입장의 오직 시 씨 나오셨고요. 반대로 ‘시인의 공적 영역에서의 행위는 시 텍스트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당연히 비판과 해석의 대상이다’라는 입장의 노분리 씨 나오셨습니다.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미당의 시는 알아도 미당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에 앞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미당의 생애 중 논쟁이 되는 부분을 추려 모았습니다. 일단 화면 보신 후,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1** 1915년 전북 고창에서 대지주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집안의 마름의 아들로 태어난 미당은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벽〉으로 등단하여 김동리, 오장환 등을 동인으로 한 〈시인부락〉의 편집인 겸 발행인이 된다. 학생시절 한때 사회주의에 빠져 학생운동을 했으나, 미당은 후에 그 일을 들어 사회주의에 어설피게 물든 결과였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후 미당은 사회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관련된 예술활동을 비판했다.

**2** 미당은 1941년 첫 시집 〈화사집〉을 발표하고 동인지를 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1942년 친일 어용 문학지인 〈국민문학〉과 〈국민시가〉의 편집을 맡으면서 친일 문학작품을 만들어 내게 되고, 특히 〈오장 마쓰이 송가〉는 서정주 시인의 대표적 친일 작품으로 지금까지 친일시의 상징처럼 남아 있다.

〈오장 마쓰이 송가〉(1944)

[...] 마쓰이 히데오! /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 인씨(印氏)의 둘째 아들 스물 한 살 먹은 사내 // 마쓰이 히데오! / 그대는 우리의 가미가제 특별공격대원 / 귀국대원 // [...] / 우리의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 정성껏 만들어보낸 비행기 한 채에 / 그대, 몸을 실어 날았다간 내리는 곳 / 소리 있어 벌이는 고흔 꽃처럼 / 오히려 기쁜 몸짓 하며 내리는 곳 / 쪼각쪼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 군함! // [...] / 장하도다 / 우리의 육군항공 오장(伍長) 마쓰이 히데오여 / 너로 하여 향기로운 삼천리의 산천이여/한결 더 질푸르른 우리의 하늘이여 [...]

그는 1984년 9월까지 자신이 일제 말기에는 민족정기를 지켰노라고 말해왔다. 그러다가 1986년 김병걸의 작업으로 친일 문학 행위의 전모가 드러나자 언론과의 인터뷰와 자신의 시 <종천순일파?>를 통해 공개적으로 친일행위를 인정했다.

**3** 그는 해방 후 결성된 ‘조선청년문학가협회’(1946년)와 이 단체가 확대 재편된 ‘한국문학가협회’(1948년)에 각각 시 분과 회장과 시가 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이 단체들은 공산주의 이론과 공산주의 문학이론을 타도하기 위한 단체였다. 그리고 1947년부터 미당은 이승만의 전기 집필을 시작하였다. 미당은 이승만과 여러 번 만남을 가지며 그를 통해 새로운 삶에의 용기를 느꼈다고 말한다.

**4** 이승만이 물러나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자 서정주는 월남참전을 앞장서서 고무, 찬양한다. 그리고 1980년 전두환이 나타나자 그는 광주학살을 용인하고, 전두환을 단군 이래 5천년 만에 만나는 미소의 인간으로 말하며 그를 위해 TV지원 연설을 하고, 72세에 56살 전두환의 생일 축하 <처음으로>를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다.

**5** 미당의 친일과 친독재 행적은 미당 생시에도 간헐적으로 비판받은 바 있지만 본격적인 논쟁은 미당 타계 직후인 2001년 촉발되었다. 한때 미당과 절친했던 후배이자 미당에 의해 등단한 고은 시인이 <창작과 비평>에 미당의 작품, 인생관, 체질, 친일, 독재 권력과의 관계 등을 문제 삼은 <미당 담론>을 게재하자 문단 일각에서 날카로운 반응들이 튀어나왔다. 많은 문인들과 평론가들의 반론이 이어졌고, 다시 이들에 대한 비판론과 성찰론이 논쟁에 불을 붙였다. 미당 담론은 <중앙일보>에서 제정한 ‘미당문학상’에 대한 비판 등으로 이어졌으나 뚜렷한 합의점 없이 문학상은 제정되었고, 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미당을 둘러싼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사회자

자, 준비된 화면 보셨고요. 이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첫 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101분 토론>은 지나간 사건을 지금, 여기로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야기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의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어투나 어미, 호칭 등은 편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분리 씨 발언해주시겠습니다.

#### 노분리

임종국 선생이 쓰신 <친일문학론> 뒤표지에 소설가 서기원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문학자답지 않은’ 행동이란 웃어넘길 수 있으나, 문학자로서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은 기록에 남겨두어야 한다.” 시사하는 바가 큰 말입니다. 미당은 참

으로 여러 차례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혜경, <미당을 둘러싼 몇 가지 문학적 오해에 대하여>, <인물과 사상>, 2001년 3월 미당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비판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친일 문학 행위를 했고 해방 후에는 친일 전력을 은폐하고자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생했으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전두환 정권에 아부한 전력을 역사적으로 냉정하게 기록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김진석, <초월적 서정주의에 스민 파시즘적 탐미주의>, <주례사비평을 넘어서>,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2

사회자

예, 지금 노분리 씨가 서정주 시인의 친일과 친독재 문제, 즉 예술가로서 도덕적이지 못한 정치적 전력에 대해 얘기해주셨습니다. 오직시 씨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시

노분리 씨의 분노는 허약한 시인조차 내버려두지 않았던 일제 말기의 사회 총동원 체제와 경제 성장 지상주의의 명분조차 갖추지 못했던 후기 군사 정권의 행패를 향해서 발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말기의 실상을 어렵듯이 경험했던 저로서는 [...] 미당에게 팔매질을 가하고 싶은 생각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의 불찰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 또 일제시대에 관한 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자면 국내 잔류자로서는 남아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유중호, <서정적 진실을 찾아서>, 민음사, 2001

노분리

많은 시인과 비평가들이 오직시 씨처럼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참기 어려운 위선입니다. 미당의 친일이 별 거 아니라고 항변하시면서 한용운의 ‘님’이 조국을 상징하느니, 이육사가 민족의 울분을 노래했느니, 신동엽이 ‘껍데기는 가라’고 했다느니 하시면서 눈물이 그렇그렇해서 감동먹는 게 도대체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복잡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형준, <미당 문학은 미당의 것이다>, <인물과 사상>, 2001년 12월 게다가 미당이 친일만 했습니까? [...] 이승만의 동산에서 목단꽃이 피어나기를 바라다가 [...] 새로 등장한 박정희에게 기울어지고 [...] 1980년 이래 전두환과 밀착되어 제 세상을 만난 듯이 광주학살을 당연한 것으로 공인하고 그 처연한 시민항쟁을 북한 공산당의 짓거리로 규탄하는 한편, 전두환을 단군 이래 5천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미소의 인간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은, <미당 답론>, <창작과 비평>, 2001년 여름

오직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남의 종살이 하는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잘 살아보자고, 출세하자고 급급했던 마음이 미당에게는 늘 있어왔습니다. [...] 그것이 일제 때 출세를 한 것,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출세한 것, 전두환 때 국제적 명성을 얻어 노벨상이라도 타 볼까 했던 미당의 욕심이었습니다. [...] 미당의 출세욕과 아부는 이렇다 할 아무 결과도 정치적 출세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생시에도 오히려 그에게 더 큰 부담만 안겨주고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을 뿐입니다. 민용태, <미당 읽기의 고뇌와 행복>, <문학과 창작>, 2001년 7월

사회자

그렇다면 미당은 출세와 부귀영화도 못 누리면서도, 왜 굳이 육까지 얻어먹어가면서 그런 시를 썼던 걸까요?

오직시

그는 그때 겨우 문단에 발을 디딘 젊은 신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일본제국을 위하여 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박해가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총독부나 기타 기관에서 그에게 어떤 시를 쓰도록 압력을 주며 강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대일본제국이 그렇게 쉽게 전쟁에 패하리라고는 전연 생각지도 못했다고 70이 넘는 나이로 슬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일본제국에 대한 믿음은 그 시절의 이 땅 백성들의 상당수가 지니고 있었던 심정이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절을 살아본 사람이면 다 아는 일입니다. 미당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 그러니까 그는 거의 심정적으로 9할은 일본인과 별 다른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그의 친일시와 소설은 그에게는 아주 자연스런 짓거리가 됩니다.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당의 그 시절의 친일시는 시에서 구두점 하나 행 구분 하나 배려하는 것보다도 훨씬 가볍게 쓰여진 것이 아닐까 하고요. [...] 이런 것들은 미당의 도덕의식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천진난만합니다. 어린애 같이 [...] 단순하고 직접적입니다. 김춘수, <소묘, 미당의 삶과 시>, <작가세계>, 2001년 봄

사회자

오직시 씨, 첫 발언에서는 미당의 행위가 일제와 군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출세를 위해서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오직시 씨의 말씀대로 미당이 한편 억지로, 한편 출세욕에, 한편 자연스럽게 그런 정치적 행보를 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문인들 중에는 시대의 불의에 항거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여 존경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시

미당의 행적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 미당이 일제에 아부하고 천황폐하를 찬양하는 시를 일본어로 썼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독재자 이승만 박사의 전기를 쓴 것도 압니다. 현대사에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대통령에게 돈을 받아 ‘국제예술인협회’를 만든 것도 압니다. 미당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우리 모두가 조금씩 아팠던 어른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는 그런 일로 미당의 시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민용태, <미당 일기의 고뇌와 행복>, <문학과 창작>, 2001년 7월 여름 시 읽기에 있어서 우리는 그 작가인 시인의 전기적 사실을, 그것도 그 작품과 관련한 시시콜콜한 일상적 사실들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있다면 그 시인의 작품생산의 토양인 정신이나 그 정신의 극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의 극들은 실제로 얼마나 들여다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그 정신의 극들 역시 안다고 하기보다는 감춰진 부분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이 옳은 고백일 것입니다. [...] 허구의 일종인 시 작품은 그것이 정전의 반열

에 드는 작품일수록 때론 작가 자신의 의도를 배반하듯이 일부 독자들의 터무니 없는 비방도 가차 없이 묵살합니다. 이미 작품 속에 썩 잘 기획되고 표현된 인간적 진실이란 작가는 물론 독자의 비틀어진 이데올로기 정도쯤은 넉넉히 물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신선, <‘자화상’ 꼼꼼히 읽기와 그 의미>, <문학과 창작>, 2001년 7월

#### 사회자

예, 오직시 씨께서 이번에는 미당의 친일과 친독재가 옳은 일은 아니지만 미당의 생애를 판단하는 것과 그의 시를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시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데올로기와 연관하여 시를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신 건데요. 노분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는 시인의 삶과 별개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 노분리

문학비평의 분야를 굳이 나눈다면 먼저 역사·전기비평, 사회·문화적 비평이 있습니다. [...] 역사주의 비평에는 작가에 대한 연구가 당연시되죠. 즉, 작가가 어떤 인생 역정을 살아왔으며 그것이 문학창작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대로 서정주는 친일작품 활동을 해왔고 이런 점이 그 후의 작품에 반성하는 태도로 나타나지도 않았습시다. 이것은 작가론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입니다. 사회·문화적 비평으로 보아도 그렇습시다. 이런 관점은 문학작품을 심미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비판하자면 서정주의 작품은 사회적 가치가 떨어집니다. ‘과거와 현재의 문학에 책임을 다하며 현재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비평’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그간 미당 서정주에 대해 문단과 사회가 보인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과거의 잘못은 있었으나 그의 아름다운 시는 후세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태도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대중에게서 제기되는 비판의 목소리는 ‘작은 트집잡기’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최항기, <시인 고은의 당연한 ‘미당’ 비판>, 인터넷한겨레, 2001.5.18

시인의 공적 영역에서의 행위는 시 텍스트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당연히 비판과 해석의 대상입니다. 아니, 시인이란 말 그 자체가 이미 공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당의 시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미당의 공적 삶이 자기 시를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소위 초월미학의 대가인 미당은 친일도, 이승만 전기를 쓰는 일도, 광주항쟁을 모욕하는 그 어떤 발언도, 어떤 문단적 감투도, 공적인 영역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어야만 합니다. 노혜경, <미당을 둘러싼 몇 가지 문학적 오해에 대하여>, <인물과 사상>, 2001년 3월

#### 오직시

시인이 꼭 지사일 필요가 있습니까? 지사여만 합니까? 미당은 정치인도 사상가도 아닙니다. 그저 시인일 뿐입니다. 미당을 평가함에 있어 지나치게 정치적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편견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시인에도 여러 유형의 시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나 고정된 도그마로 재단할 수 없는 다면적 측면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 천재는 모든 것에 천재일 수는 없으며, 또 세상살이에 있어 흠 없는 영혼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미당은 어쩌면 정치에 대해서는 천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와 비극은 우

리 근대사의 파행성이 초래한 공유의 상처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미당은 일제말의 과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사과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당의 그러한 실망스런 행동을 탓하기 전에 그 근저에서 작용하고 있는 심리적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이러한 선례를 통해서 앞으로의 바람직한 시인의 표본을 정립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지사들도 가지고 싶지만, 시인도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은 자율적인 존재이며 그 자체의 예술적 구조와 논리를 지닙니다. 따라서 작품 속의 현실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왕왕 괴리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 문학작품을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으나, 순수한 예술 자체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시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작품을 남겼느냐 하는 점이 됩니다. 보편적 공감을 자아내는 탁월한 시라면 그것은 그 나름의 진실이 있는 것이고, 이는 곧 시인이 자신의 예술에 충실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른 사소한 일들은 무시되어야 합니다. [...] 시인 미당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당이 자신의 문학에 대해 얼마나 성실했느냐를 놓고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명수, <시인은 시인일 뿐이다>, <문학과 창작>, 2001년 7월

#### 노분리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프랑스 비시(Bichy)체제 아래 나찌를 지지한 2백자 원고지 6장 정도의 친독행위가, 그 정부의 특혜로 백만장자가 된 경제인이 5년 정도의 감옥살이로 끝난 것과는 달리, 사형에 처해진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잔인하기까지 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신문사 원고료 몇 푼으로 처형되는 것과 친독 재벌이 된 사람이 가볍게 살아나는 것의 차이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글이란 뭇인가라는 뜨거운 질문이 일게 됩니다. 글이란 역사 속에서 결코 돈과는 견줄 수 없는 가치로 발전하는 생명체임을 그 사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의 헤시오도스(Hesiodos)는 오늘의 이름이 되었으나 그 당시의 아테네 부호에 대한 기억은 거의 불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미당의 친일이나 그 이후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적 역시 그의 언어가 부리는 마술과 요술의 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소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토속적 흡입력을 자랑하는 좌장적(座長的)인 권위와 숙달된 모국어 구사의 형상능력으로 그의 자취를 호도할수록 도리어 그의 문학 자체가 손괴당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 저는 친독에 대한 프랑스의 역사청산이 지금도 진행 중인 사실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을 무방하다고 믿습니다. [...] 천도(天道)도 옳으나 그러나 물어야 하거늘 지상의 한 시인이 남긴 것들에 대해서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고은, <미당 탐론>, <창작과 비평>, 2001년 여름

#### 오직시

미당의 정치적 행적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우리 민족사에 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당의 시가 그런 이유로 매도당하는 것은 엄청난 민족문화의 손실입니다. [...] 노분리 씨는 ‘한 지상의 시인이 남긴 것들’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노분리 씨의 물음은 주로 미당의 정치적 삶에 집중됩니다. [...] 미당의 삶에서

정치적 삶의 비중은 매우 작습니다. 정치적 삶만으로 미당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삶이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단순논리가 역사에 남긴 끔찍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남호, <미당의 시를 옹호하며>, <경향신문>, 2000.7.9

노분리

단순하게 봅시다. 미당이 친일을 하고 군부독재자를 위한 찬미시를 쓴 것은 아주 단순하게 평가하면 친일 매국노가 아닙니까? 진리는 단순합니다. [...] 미당이 친일 매국노임을 부인하기 위해 나오는 오직시 씨의 논리는 미당의 친일 매국 행위를 과소평가하고 그의 시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 미당의 정치적 삶의 비중이 매우 작다니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정치적 행위라는 것도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 미당의 모든 시, 모든 시인의 모든 시, 그리고 모든 사람의 모든 시가 정치적 언어입니다. 미당의 행적에서 정치적 행적이 적다고 변호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도 모르고 시도 모르는 망언일 뿐입니다. 또 친일 매국노 이완용도 당대의 최고의 서예가로서의 일생이 전부이고 매국행위는 일생에서 단지 극히 짧은 시간을 사조약을 맺는 시간뿐이므로 변호 받을 수 있겠습니까? 김승열, <이남호 교수의 미당옹호에 대한 반론>, 인터넷한겨레, 2001.5.24

오직시

한 시인에 대한 평가, 특히 시에 대한 평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가 별 볼일 없으면 평가와 관계없이 잊혀질 것이고 훌륭한 시라면 누구나 말하듯이 시간을 뛰어넘어 사랑받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론가들이야 시인과 개인적으로 얽힌 것이 많으므로 시의 평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는 결국 일반 독자가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시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시만을 놓고 평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0년 후의 독자가 미당의 시를 읽는다면 미당 개인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시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탁석산, <위대한 시·위대한 시인·위대한 인간>, <문예중앙>, 2001년 가을

노분리

일반 독자가 시를 평가한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이 발언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시 씨가 저지르고 있는 자기모순입니다. 오직시 씨가 진정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작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사람들은 미당 예찬론자들이어야 옳을 것입니다. 예컨대, 미당 예찬론자들의 일부는 “미당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는 오만하고도 반(反)문화적인 주장을 했으며, 그런 주장에 화답하는 주류 문단의 평가에 힘입어 2001년에는 미당문학상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준만, <미당 서정주에 대한 극단주의>, <인물과 사상 제25권>, 개마고원, 2003

사회자

여기서 제가 잠깐 끼어들어 방청석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분리 씨의 발언 중 미당문학상 얘기가 나오자 방청객 중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일어서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저 분께 넘겨보겠습니다.

방청객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최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듣고 있

습니다. 노분리 씨 말씀 중에 미당문학상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미당문학상은 이미 7년 전에 황순원문학상과 함께 <중앙일보>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문학상과 관련한 서정주 논쟁이 이미 문학적 논쟁을 떠난 정치적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이 개인이나 사적인 집단이 아닌 언론에서 제정했다는 것을 보면 결국 미당문학상은 문단 내의 권력, 그리고 정치적 권력과의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회자**

간단히 요약하면 미당문학상이 문단 내 권력, 정치적 권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먼저 문학상 제정에 적극 찬성하신 오직시 씨께서 미당문학상 제정의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오직시**

미당 서정주와 황순원 선생은 각각 시와 소설 부문에서 민족정신과 정서를 가장 세련된 우리말로 표현한 최고의 작가라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우리 문학을 대표해온 두 분이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2000년에 잇따라 타계한 것을 계기로 그분들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문학상 제정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기가 바뀌고 삶의 양식이 달라진다 해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될 인간성과 한국인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그분들의 문학을 계승하면서 확대·심화해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앙일보>, 2001.6.27

**노분리**

황순원 선생의 경우 그동안 삶과 문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해석집단 사이에 이견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미당의 경우 문제는 다릅니다.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친일과 친독재는 물론이고 그의 문학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는데 사회적 공기(公器)인 신문이 서둘러 그를 기념하는 문학상을 제정했던 것은 토론을 권장하고 타당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구모룡, <문학상 제정보다 담론의 활성화가 우선이다>, <민족예술>, 2001년 8월

**오직시**

추진 과정에서 황순원 선생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으나 미당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했음은 사실입니다. 시에서 한국인 마음의 깊이와 아름다움, 한국어 자질을 가장 세련되게 가꾼 최고의 시인임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그의 친일·친독재 부분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인들이 미당이 우리 현대시에 끼친 공이 그의 흠결을 덮고도 남을 만하다는 데 동의했고, 당시 국민의정부에서도 ‘미당에 대해서는 시로 말해야 옳다’며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한 사실에 유념하여 오랜 논의 끝에 상을 제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중앙일보>, 2001.6.27

**노분리**

아까 방청객도 말씀하셨지만, 미당을 기념하는 문학상을 유족이나 제자들이 제정하였다면 이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신문사가 상을 제정하고 운영할 경우 문제는 달라집니다. 신문사가 특정 해석집단만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삶과 문학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왕의 오직시 씨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하면서 “현대시에 끼친 공이 그의 흠결을 덮고도 남을 만하다”는 판단에 대해 해당 신문사도 [...] “금관문

화훈장을 추서한 사실에 유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의 제정을 위해 미당의 문학에 대한 정치적 판단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모룡, <문학상 제정보다 담론의 활성화가 우선이다>, <민족예술>, 2001년 8월

#### 사회자

그렇다면 노분리 씨는 신문사에서 문학상을 굳이 제정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는 미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와 담론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미당 비판론자들의 비난과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요.

#### 노분리

우선 상징권력을 통한 언론권력의 확대 의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시와 소설 두 부문에서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문학의 양대 장르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언론권력의 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지배적 문학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들 수 있습니다. 미당문학상을 제정함에 시인은 시로 평가한다는 하나의 원칙만을 수용하였는데 이는 해방 이후 오랫동안 우리 문학을 지배해온 분리주의 이데올로기의 관철에 다를 바 없습니다. [...] 이러한 분리주의가 해방 이후 냉전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분단체제가 확대재생산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해방 이후 문학주의를 표방한 소위 순수파 문인들이 해석을 독점하면서, 그들은 상징권력을 장악하는 한편, 이데올로기와 제도 등 모든 영역에 있어 현실 권력도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당에 대한 해석의 많은 부분은 그 자신이 만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상징권력과 현실권력을 확보한 가운데 교육과 문학 제도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집단을 양성하고 분리주의적 미학 계보를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구모룡, <문학상 제정보다 담론의 활성화가 우선이다>, <민족예술>, 2001년 8월

#### 오직시

그가 만들어온 시와 시적 지혜는 특정의 종교나 이데올로기, 철학이나 인문학 같은 틀로 고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시가 드물게 매우 독특한 상상력의 틀과 시적 수사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물론 미당은 비판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함도 그 평생의 시학 노정이었던 영원성의 미학 전체를 허물어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시는, 일제 말기의 논리적 파탄까지를 포함하여 우리 시사가 끌어안아야 할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진은, <서정주가 빠진 국어 교과서>, <시평>, 2003년 여름

#### 사회자

미당문학상 관련 논쟁 역시 궁극적으로는 ‘작품은 작품으로만 보아야 하느냐, 작가의 삶이나 사회정치적 권력관계 안에서 보아야 하느냐’라는 문학 해석의 분리·비분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군요. 굳이 미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도 오랫동안 논쟁이 돼왔던 이 문제는, 비평의 관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쉽사리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까요? 오직시 씨께서는 계속해서 미당 시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문인들이 미당 시에 등장하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은 최고의 경지라고 합니다. 하여, 두 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

답겨 있는 개인적·사회적 자아를 떠나 시 자체로만 볼 때, 미당의 시는 어떻습니까? 노분리 씨께서 먼저 말씀해주세요.

**노분리**

예, 미당 시에 대한 정확한 비평은 미당 시에 대한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시급할 뿐 아니라, 오늘의 한국 시가 앓고 있는 깊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에 매우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하니, 미당 시란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물음은 찬사나 비하를 하기 위한 물음이 아니라 [...] 결국 한국의 현대시사(現代詩史) 속에서 미당 시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 도대체 미당 시란 무엇일까요. 조선어의 아름다운 결정일까요? [...] 우리는 미당의 언어 음향에 대한 뛰어난 감각 속에서 배울 바가 있을 것입니다. 조선어의 음향의 아름다움을 미당만큼 섬세하게 표현해낸 시인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습니다. [...] 그러나 미당 시의 언어학적 공적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미당 시어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당 시어의 언어적, 음향적 아름다움은 개체적 시어의 아름다움의 한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당 시어의 아름다움은 삶의 어떤 사회적 혹은 역사적 경험의 세계와 살아 있는 관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향적 아름다움은 세속적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에서 나온 신명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언어의 세공과 공작을 통한, 잘 닦여진 고풍의 사물과 같은 아름다움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임우기, <그늘에 대하여>, 강,

1996

**사회자**

그러니까 미당의 시어는 아름답지만 그 의미를 짚어보면 삶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같고닦은 언어 자체의 아름다움이란 말씀이시군요. 오직시 씨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미당의 시는 어떻습니까?

**오직시**

그릇 큰 시인을 가늠하는 척도는 무엇일까요? 첫째가 풍요한 작품량이며, 둘째는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언어구사, 셋째는 독자적인 세계 이해나 통찰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유중호, <미당 시세계 마땅히 기려야>, <중앙일보>, 2001.6.27 먼저 작품량을 한번 봅시다. 미당은 생전에 엄청난 양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 언어의 조음성을 굴절시켜 스스로 홀로서는 자폐적 성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의존했던 시인들의 경우 풍요성의 거부는 진정성의 지표인 양 생각되기도 합니다. [...] 그러나 파생적 이차 텍스트의 풍요한 생산성을 내장하고 있는 미당과 같은 계열의 시인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릇 큰 시인으로 알려진 저쪽의 시인들은 우리 쪽보다는 한결 두터운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중호, <소리지향과 신문지향>, <작가

세계>, 1994년 봄

**노분리**

극히 예외라고요? 그리고 ‘그릇 큰 시인으로 알려진 저쪽의 시인들’이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작이란 기준 자체가 매우 허약할 뿐 아니라 아전인수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 다작은 단순히 생산된 작품의 수량의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가 시들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미학적 방식과도 깊

은 연관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김진석, <초월적 서정주의에 스민 파시즘적 탐미주의>, <주례사비평을 넘어서>, 한국출

판마케팅연구소, 2002

#### 사회자

노분리 씨, 일단 오직시 씨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보고 반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시 씨, 발언 계속해주세요.

#### 오직시

예, 또한 저는 그가 우리말을 가장 능수능란하고 아름답게 구사하는 시인이며, 또 그의 시에는 우리 겨레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정주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말의 가장 아름다운 꼴을 만나고 또 우리 겨레가 가진 독특한 심성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이남호, <겨레의 말, 겨레의 마음>, <미당연구>, 민음사, 1998} [...] 겨레의 말을 아름답게 다듬어 겨레의 마음씨를 그토록 아름답게 표현하고 되살린 미당의 문학적 업적은 문학사뿐만이 아니라 민족사에서도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이남호, <미당의 시를 옹호하며>, <경향신문>, 2000.7.9

#### 노분리

도대체 겨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오직시 씨는 자신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함부로 미당이 겨레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찬을 절제 없이 늘어놓는 비평은 텍스트에 대한 존경을 빙자한 선정적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당은 자신의 방식대로 겨레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먼 길을 갔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한국 시인 중에서 미당이 가장 아름다운 말을 썼고 가장 겨레다운 마음을 표현했다는 주장은 전혀 문학적인 비평이 아니며 나아가 한국 시문학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 미당이 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가 가장 아름다운 말을 구사한다는 주장을 함부로 하는 것은 뻔뻔합니다! 아름다움에는 여러 기준이 있고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김진석, <초월적 서정주의에 스민 파시즘적 탐미주의>, <주례사비평을 넘어서>,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2

#### 오직시

그의 꾸준한 시적 탐구에 의해 [...] 한국어에 더 많은 부(富)가 더해졌고 바다 건너 도입된 새로운 시적 형식이 보다 세련된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사한 분방하고 활달한 이미지와 다채로운 어법은 우리 시의 지평을 멀리 확장시키고 그 수심을 깊게 했습니다. [...] 그는 시를 통해 자기만의 나라,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우주를 건설했습니다. 남진우, <집으로 가는 먼 길>, <현대문학>, 2001년 2월 미당은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최고의 시인입니다. [...] 여러 명의 큰 시인들이 합쳐도 미당의 시세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당만큼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표현을 확장시킨 시인은 없습니다. [...] 미당이 없는 한국 현대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남호, <미당의 시를 옹호하며>, <경향신문>, 2000.7.9

#### 노분리

언어의 마술사라는 호칭은 어느 정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시에서 언어의 역할은 매우 크지만, 시가 언어의 작용만으로 가장 완미한 형태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적 감성 말고도, 시에서는 사유나 감각, 윤리와 역사의식도 결코 중요치 않은 요소가 아닙니다. 김윤태, <미당의 친일에 관한 시론(試論)>, <시경>, 2003년

상반기

오직시

노분리 씨에게만 역사의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당에게도 누구 못지않은 나름의 역사의식이 있었다고 나는 봅니다. <서정주문학전집> 1권 시집 예시(禮詩)난에 실린 수많은 국경일 행사 기타 기념시, 축시 등의 애국시들은 그런 면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우식, <미당담론에 대한 반론>, <문학과 창작>, 2001년 7월

노분리

예, 맞습니다. 노분리 씨 말씀대로 미당은 다수의 축시들을 맹목적이고도 공허한 방식으로 생산해내기도 했습니다. 김진석, <초월적 서정주의에 스민 파시즘적 탐미주의>, <주례사비평을 넘어서>,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2

1987년 미당 72세 당시 56세의 전두환 생일 축시 <처음으로>를 발표했습니다. 그 일부를 읽어드릴까요? “이 겨레의 영원한 찬양을 두고두고 받으소서 [...] 님은 온갖 불의와 혼란의 어둠을 씻고 / 참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마련하셨나니 [...] 잘사는 이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 모든 물가부터 바로 잡으시어 / 1986년을 흑자원년으로 만드셨나니 [...] 이 민족기상의 모범이 되신 분이여! // 이 겨레의 모든 선현들의 찬양과 /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찬양과 / 하늘의 찬양이 두루 님께로 오시나이다” 고은, <미당 담론>, <창작과 비평>, 2001년 여름

오직시

나쁜 마음을 먹고 혈안이 되어서 찾는다면, 아무리 잘 가꾼 잔디밭에서라도 잡초를 찾아낼 수 있는 법입니다. 이남호, <고은의 미당비판' 비판>, <동아일보>, 2001.5.20

노분리

미당의 경우 능란한 탐미적 언어의 구사가 나름대로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은 사실 이터라도, 그 탐미성은 시인이 실존의 균열에 눈을 감은 채 축시적 노래의 기능에만 과도하게 봉사했기에 생긴 결과일 것입니다. 김진석, <초월적 서정주의에 스민 파시즘적 탐미주의>, <주례사비평을 넘어서>,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2

미당을 언어의 연금술사니 부족 언어의 마술사니 하고 말하는 것은 증명할 길 없는 단순한 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인의 언어감각이란 단순히 글을 매끄럽게 다듬는 재주가 아닙니다. 노혜경, <미당을 둘러싼 몇 가지 문학적 오해에 대하여>, <인물과 사상>, 2001년 3월

오직시

너른 의미의 철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체계적인 사상의 구조나 사고의 뭉치를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종교적 세계 이데에 심정적 동참을 유도하는 웅장한 신앙 고백의 극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인간 세계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담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서사시나 장시의 시인들은 그러한 성취에 도달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시가 주류로 되어 있는 근대시 이후로는 시인에게 그렇게 과도한 요청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이른바 ‘인지의 충격’을 통해서 삶에 대한 통찰과 이에 대처하는 삶의 태도를 시사하는 것만으로도 시인은 큰 몫을 하는 것입니다. 유종호, <소리지향과 산문지향>, <작가세계>, 1994년 봄

노분리

설득력을 가지기 힘든 빈약한 근거가 아닐까요. 미당이 정말 삶에 대한 커다란 통찰을 주었고 포괄적인 세계 이해에 도달하였습니까? [...] 충격적 관능성을 표방한 첫 시집이 그 나름대로 적지 않은 시적 성과를 가졌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신라초>, <동천> 등에서 표방된 전통 회귀주의나 사랑의 영원주의는 많은 경우 공허한 수사로 기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세계 이해의 관점

에서 깊이 있고 웅숭깊은 지평을 열어 보여주어서 미당의 그릇이 크다는 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균열과 분열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 그는 이 고통스런 구렁텅이에 얼굴을 돌리고 또 돌렸는데, 그 태도에는 ‘현실 도피주의’라는 말도 적당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김진석, <초월적 서정주의에 스민 파시즘적 탐미주의>, <주례사비평을 넘어서>,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2 게다가 미당에게는 삶에서나 문학에서나 이른바 대응콤플렉스라는 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연중 자신을 무오류성에 두게 합니다. 세상사를 개괄적으로 깨달은 나머지 세상에 대한 어떤 종류의 자책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뇌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천우신조라든가 복이라든가 하는, 전래되는 세속적 이익을 믿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실존적 자아의식이나 근대적 역사 사고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은, <미당 답론>, <창작과 비평>, 2001년 여름

#### 오직시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무등을 보며>에서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시 한 구절이 6.25라는 한국분단전쟁의 어려운 물굽이를 넘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삶의 위안이 되었으며, <국화 옆에서>는 어떠합니까? [...] 미당이 추구하고자 했던 세계란 궁극적으로 삶의 지혜나 요량으로서의 신라정신 내지는 풍류성, 영생성이었다는 것에 미친다면 그것들은 다 인생을 잘못 살면 안 되겠다는 자신의 오류성에서 한 발 내딛는 결과였다고 긍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강우식, <미당 답론에 대한 반론>, <문학과 창작>, 2001년 7월

#### 사회자

예, 이제 토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서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 가지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토론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교수’라는 닉네임으로 올려주신 글입니다. “서정주의 시를 제외하고 한국시사를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 언제부터인가 서정주의 시가 ‘국어’ 교과서에서 사라졌는데 [...] 우리 겨레라면 누구나 학생시절에 맞보아야 할 시의 목록에서 서정주가 빠져 말할 수 없이 허전하다.” 손진은, <서정주가 빠진 국어 교과서>, <시평>, 2003년 여름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 밑에 답글이 달렸군요. ‘진짜 문제’라는 닉네임으로 달린 의견입니다. “‘교수’님이 교과서 얘기를 꺼낸 것은 서정주 시인을 너무 ‘흠모한’ 나머지 고심을 거듭하던 끝에 손가락을 움직인 ‘실언’이었거나, 대학에 재직중이라 지금 중고등학교 국어교육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믿고 싶을 따름이다. [...] 아이들이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에 친일 시인들밖에 없었냐’고 물어온다면 [...] ‘시와 삶은 별개의 문제’이며 ‘시만 잘 쓰면 어떤 행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느냐?” 배창환, <서정주와 국정 교과서의 진짜 문제>, <시평>, 2003년 가을 라고 써주셨습니다.

‘카뎀’이라는 닉네임으로 노분리 씨께 전해달라며 써주신 분도 계시네요. “카뎀가 노벨상 수상연설에서 했다는 말, ‘나는 정의를 사랑한다. 그러나 정의가 내 어머니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다면 나는 어머니의 편에 설 것이다’를 노분리 씨에게 들

려주고 싶다.” 이근배, <스승의 은혜 저버리고 이제와 산소에 갈 꽃다니>, <중앙일보>, 2001.5.19 아, 이 아래에도 방금 답글이 달렸습니다. 닉네임은 ‘내가진짜카뫼’입니다. “저는 ‘카뫼’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나는 스승을 존중한다. 그러나 스승이 매국노가 되어 내 조국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다면 나는 내 조국의 편에 설 것이다.’”(김승열, <이근배 시인의 터무니없는 고은 비판>, 인터넷한겨레, 2001.5.20 } 스튜디오 못지않게 누리꾼들의 의견도 팽팽합니다. 10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미당의 친일과 친독재부터 시와 삶의 분리·비분리 문제, 그리고 그의 시 세계까지 조금씩이나마 들어봤는데요. 두 분께서는 아직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지만 시간 관계상 최종 발언을 들어보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토론을 지켜본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가 미당과 그의 시를 이해하고 평가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주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두 분의 마지막 발언 들겠습니다. 저는 여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직시

물론 미당 시를 얘기하면서 생활인으로서의 미당의 행적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우리가 미당 시를 읽는 것은 세계 향유의 일환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읽는 것인지 시인 당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유중호, <서라벌과 칠마재 사이>, <현대문학>, 2001년 2월 제가 무슨 표현으로 그의 문학을 예찬하든, 그의 삶을 사랑하든 그냥 미당은 시로서 미당이고, 가장 큰 시인으로 거기 있을 뿐입니다. 그의 몇 가지의 인간적 허물에 대한 지적도 그 안타가운 객관적 오류를 가벼이 넘기지 말자고 하는 볼멘 다짐도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의 찬란한 시의 비늘 앞에만 서면 그만 눈멀 수밖에 없고 온몸으로 전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독재자조차도 흠치고 싶었던 그의 시훈이었을까요. [...] 미당은 시의 귀신입니다. 미당의 시에는 대표작이 따로 없지요. 모두가 탁월한 절창이요, 기막힌 명시인 것입니다. 그에게 붙들리면 우리의 별스럽지도 않은 일상이나 자잘한 풀잎 하나도 그대로 독특한 빛을 발하며 찬란한 시로 화하고 맙니다. [...] 저는 그의 시는 슬프고 불행한 시대를 통과하며 한국문학이 빚어낸 가장 매혹적인 수확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미당은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미당은 ‘시인이었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문정희, <미당은 ‘시인이었다’>, <작가세계>, 2001년 봄

#### 노분리

문인의 생애에서 작품을 분리하고, 작품은 오직 작품 그 자체의 아름다움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참 그럴 듯해 보입니다. 게다가 가벼운 것을 요구하는 이상업주의 시대에 거대담론의 억압에 지친 우리들에게 또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 그러나 우리가 작가에게 표하는 경의는 근본적으로 도자기 제조 공이나 포도주 제조인에게 표하는 경의와 다릅니다. 문학 자체의 아름다움은, 그 생산자에 대한 총체적 경의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기준 또한 절대로 생산자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노혜경, <미당을 둘러싼 몇 가지 문학적 오해에 대하여>, <인물과 사상>, 2001년 3월

시인이란 어떤 시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척적 상황에 진입함

으로써 일체의 이데올로기적인 명분들이 철수된 시대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초상으로서 어떤 현세성에 추수하지 않는 시혼으로서의 투혼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비정치적인 환경 안에서도 말입니다. [...] 여기서 더 이상 미당의 삶과 시에 대해 분석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그후에도 다른 형태로 이어짐으로써 그의 후기 생애를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의 시적 성취가 부수화되는 것을 역설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긴 불화를 지나 화해를 실현하는 아름다움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화해는 아픔 없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고은, <미당 담론>, <창작과 비평>, 2001년 여름

## 출연

|        |   |
|--------|---|
| 노브리    | 강준만, 고은, 구모룡, 김승열, 김윤태, 김진석, 노혜경, 박형준, 임우기, 최항기       |
| 오직시    | 강우식, 고명수, 권성우, 김춘수, 남진우, 민용태, 손진은, 유중호, 이남호, 탁석산, 홍신선 |
| 교수     | 손진은   |
| 카뮈     | 이근배   |
| 내가진짜카뮈 | 김승열   |
| 손석화    | 〈문화예술〉 편집부 홍상희  |

\* 본문에 인용된 내용은 해당 필자의 글 중 일부만 발췌한 것으로,  
필자가 글 전체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한 논지와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 서정주(徐廷柱, 1915~2000)

본관은 달성(達城), 호는 미당(未堂)이다. 1915년 5월 18일 전라북도 고창(高敞)에서 태어났다. 고창의 서당에서 공부한 후,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36년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중퇴하였다.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벽〉으로 등단하여 같은 해 김광균(金光均)·김달진(金達鎭)·김동인(金東仁) 등과 동인지 〈시인부락〉(詩人部落)을 창간하고 주간을 지냈다. 1941년 〈화사〉(花蛇), 〈자화상〉(自畫像), 〈문동이〉 등 24편의 시를 묶어 첫시집 〈화사집〉을 출간했다.

1942년 7월 〈매일신보〉에 다츠시로 시즈오(達城靜雄)라는 이름으로 친일 작품을 쓰기 시작한 서정주는 1944년까지 친일 문학지인 〈국민문학〉과 〈국민시가〉의 편집에 관여하면서 수필 〈징병 적령기의 아들을 둔 조선의 어머니에게〉(1943), 단편소설 〈최제부의 군속 지랑〉(1943), 시 〈오장 마쓰이 송가〉(1943) 등 11여 편의 친일문학을 발표했다.

1948년에는 시집 〈귀축도〉, 1955년에는 〈서정주 시선〉을 출간해 자기 성찰과 달관의 세계를 동양적이고 민족적인 정조로 노래하였고, 이후 불교 사상에 입각해 인간 구원을 시도한 〈신라초〉(1961), 〈동천〉(1969)과, 토속적·주술적이며 원시적 사머니즘을 노래한 〈질마재 신화〉(1975)를 비롯하여 1990년대까지 왕성한 작품활동을 했다.

1948년 〈동아일보〉 사회부장·문화부장, 문교부 예술국장을 거쳐 1954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 되었다. 이후 조선대학교·서라벌예술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문리대학 교수(1959~1979)를 지낸 뒤 동국대학교 대학원 종신 명예교수가 되었다. 1971년 현대시인협회 회장, 1972년 불교문학가협회 회장, 1977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1984년 범세계 한국 예술인회의 이사장, 1986년 〈문학정신〉 발행인 겸 편집인을 지냈고, 2000년 12월 24일 사망하였다.

저작에는 〈한국의 현대시〉, 〈시문학원론〉, 〈세계민화집〉(전5권) 등이 있으며, 시집에는 위의 시집 외에 〈흑산호〉(1953), 〈국화 옆에서〉(1975), 〈미당 서정주 시전집〉(1991) 등이 있다. 대한민국문학상·대한민국예술원상, 5·16 민족상, 자유문학상 등을 받았고,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2002년 2월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자체 조사하여 발표한 '일제하 친일 반민족행위자 1차 명단'(708명)에 포함되었다.

